10년 만의 고금리 장기화…이자 부담에 중소기업 '울상'

은행 대출금리 14개월째 평균 5% 넘어…비중 2년 전 3.8%의 17배↑
중기 대출잔액 1000조 돌파…신규대출 중 금리 5% 이상이 65% 차지

올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금리 인하 전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에 불거진 중소기업의 고금리 장기화 현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서다.

특히 자금 상황과 더불어 지역 경기까지 좋지 않은 광주·전남은 한계기업으로 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4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지난해 2월(5.45%) 이후 9개월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22년 10월(5.49%) 이후 14개월 연속 5% 선을 웃돌았다. 이처럼 평균 5% 이상의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난해 이전에 5% 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3월(5.02%)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2.86%)에는 2%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코로나 이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2년 10월(5.49%) 5%대로 치솟은 뒤 5%대 중반 수준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은 64.6%에 이른다. 이 비중이 과반인 현상 역시 2022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비중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년 전(3.8%)의 17배에 이른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03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12월 말에는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해 999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최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돼온 2분기 금리 인하설은 힘을 잃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0%)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둔화세를 보여온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4%로 오히려 반등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금리 인하 전망도 약화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 고금리 부담이 누적돼 한계 상황에 몰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2분기 이후 고전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진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 12년 연속 최우수사무소 선정

종합업적평가 우수

NH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이 12년 연속 최우수사무소에 선정됐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은 15일 2023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NH농협은행 광주유통센터지점이 최우수사무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유통센터지점은 12년 연속 최우수사무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

광주유통센터지점은 전국 800여개 농협은행 금융점포를 대상으로 고객 및 사업증대 실적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과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12년 연속 최우수사무소 선정은 수도권, 대도시와 견줘 인구 수와 경제규모, 금융거래 수요가 적은 환경 속에서 이뤄낸 결실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무엇보다 농협을 믿고 거래해 주신 고객분들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고 소통·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특별강연

법인세 공제·승계 지원 등 강의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초청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진〉

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을 비롯해 법인세 공제와 감면 컨설팅 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 등 협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했다.

양동구 청장은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성실납세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 세금포인트 부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같은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확인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있으므로 시행 중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추진 중인 정책도 적극 홍보했다.

양 청장은 또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설명하면서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면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의 이노비즈인증사와 537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의 모임으로 지난 2010년 창립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카드 쓰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광주은행, 2월 14일까지 '광주카드가 쏜다'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2월 14일까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설레는 날 광주카드가 쏜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4개로 이뤄져 있으며, 참여 응모 필수고 중복 추첨도 가능하다.

'설날 한 턱 쏘고 난! 에어팟 프로 받고'는 기간 내 광주카드로 합산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명에 에어팟 프로 맥스를 제공한다.

'설레는 여행 준비! 주유비 지원해드립니다'는 기간 내 여행(항공사·면세점·관광여행)업종에서 광주카드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쿠폰(2만원)을 제공한다.

'소중한 사람에게 설레는 선물하고 2만원 상품권 받자'는 기간 내 쇼핑(백화점·대형마트)업종에서 광주카드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쿠폰(2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 Wa(와)뱅크 앱, 모바일웹뱅킹, 인스타그램(@kj_card), 카카오톡(광주은행 KJ Card), 페이스북(KJ Card),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5.99 (+0.94)
↓	코스닥	859.71 (-8.37)
↓	금리 (국고채 3년)	3.191 (-0.013)
↑	환율 (USD)	1320.20 (+6.70)